

## 작지만 큰 나눔

정부와 사회단체는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그간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제도권 내 의료 서비스조차 원활하게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 복십자부인봉사회 안산 빈센트 의원에 후원금 전달

대한결핵협회는 소외된 결핵환자 자활을 위해 1981년 협회의 임원 부인들로 구성된 봉사조직인 복십자부인봉사회(회장 김순효)를 결성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체기금 조성을 통해 결핵 및 불우 시설에 필요한 물품 및 후원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 12월 17일에는 연말을 맞아 안산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취약계층 무료 진료소 안산 빈센트 의원(www.ansanvincent.or.kr)을 방문해 후원금 1백만 원을 전달했다.

안산 빈센트 의원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인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지난 2004년 7월에 개원했다.

빈센트(St. Vincent de Paul, 1581.4.24 ~ 1660.9.27)라는 이름은 프랑스 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많은 고통 받는 사람들의 구제 사업을 펼쳤던, 16세기 모든 자선사업 단체의 주보성인으로 선포되기까지도 했던 빈센트라는 자선가의 이름에서 지어졌다. 현재 기관의 운영은 후원과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빈센트 의원은 진료 특성상 결핵 환자 등이 다수 발견되어

보건소로 전원시키는 등 결핵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매년 4~8명 결핵환자를 타병원과 연계하여 치료토록 했으며, 올해 결핵의증 환자가 유독 많았다.

한편, 5개의 진료실과 물리치료실·방사선실·약국 등을 갖추고, 30여 명의 자원봉사자 전문의가 진료하는 안산 빈센트 의원의 진료 시간은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야간 진료는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

